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

핵 폐기를 위한 대화

미국 뉴멕시코 산타페 대교구 존 웨스터 주교의 사목서한



미국 뉴멕시코 산타페 대교구, 존 웨스터 주교의 사목서한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

(Living in the Light of Christ's Peace)

핵 폐기를 위한 대화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

(Living in the Light of Christ's Peace)

핵 폐기를 위한 대화

In a single plea to God and to all men and women
of good will, on behalf of all the victims of
atomic bombings and experiments, and of all conflicts,
let us together cry out from our hearts:



NEVER AGAIN WAR,
NEVER AGAIN THE CLASH OF ARMS,
NEVER AGAIN SO MUCH SUFFERING!
MAY PEACE COME IN OUR TIME
AND TO OUR WORLD.

-Pope Francis, Peace Memorial (Hiroshima), Sunday, 24 November 2019

Poster and Art, STREET SINGER, 1998, by John August Swanson, 2020

하느님과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탄원하오니,
원자폭탄과 핵 실험, 그리고 모든 분쟁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신하여
온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자.

어떤 전쟁도, 어떤 무력 충돌도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그토록 엄청난 고통도 다시는 겪지 않게 되기를!
우리 시대와 우리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내용 목차

들어가는 말 : 히로시마에서 뉴멕시코까지,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는 여정	4
1부 평화의 장인이 되라는 부르심 : 교황 프란치스코, 교회, 복음의 가르침	8
2부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핵 위협 : 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가	18
3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 유일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은 핵 폐기	25
4부 나아가야 할 길 : 성찰, 대화, 그리고 행동	31
맺음 말 :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	34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37
서한 요약	39
부록 1 연구, 성찰 그리고 행동을 위한 몇 가지 제안	40
부록 2 개인 성찰과 모임에서의 논의를 돋는 질문	44
참고 도서	45
주석	48

< 들어가는 말 >

히로시마에서 뉴멕시코까지,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는 여정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7년 9월, 저는 일본을 여행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인류가 핵시대의 어둠이라는 선을 넘어 섰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은 암울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십억 명의 사람을 한 번에 죽이고 심지어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세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거닐면서 이런 사악한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전시관에서, 1945년 8월 그 운명적인 아침에, 히로시마의 학생들이 밝은 불빛에 이끌려 창문으로 달려갔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불에 타 죽거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보통 빛은 새로운 삶과 더 명확한 시야를 갖게 해 줍니다. 하지만 그 날은 아니었습니다. 슬프게도, 전쟁에 사용된 최초의 핵 폭발로 생성된 빛은 오로지 파괴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림 1 : 원폭 투하 후의 히로시마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제가 학생이던 때를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몇 대의 러시아 비행기가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건 아닌가 싶어 하늘을 올려다 본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서워서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일본 학생들은 두려워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망갈 시간도 도망 칠 집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을 가로질러 소각된 원폭 둘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핵전쟁 가능성이 현실이 되리라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핵 위협에 대한 공포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핵전쟁에 대비하여 책상 밑에 숨거나 가장 가까운 방공호를 찾는 연습을 했던 일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그런 기억을 다시 생생하게 불러들였습니다.

제가 뉴멕시코로 돌아온 지 하루인가 이를 뒤, 친구 몇이 산타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뉴멕시코 역사박물관에 데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색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전시관을 관람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에, 맨해튼 프로젝트(the Manhattan Project)¹⁾,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th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와 샌디아 국립연구소(the Sandia National Laboratory)의

1) 제2차 세계대전 중에(1942년부터 1946년까지)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핵 폭탄 개발 프로그램이다. 전쟁 기간 동안 두 종류의 핵폭탄이 개발되었는데, 하나는 우라늄-235를 탄두로 사용한 포신형 핵분열 무기이고, 또 다른 종류는 플루토늄을 탄두로 한 내폭형 핵폭탄이었다. 폭탄의 개발과 제작은 뉴멕시코 주에 있는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발전 과정, 그리고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이 전시물들을 일본을 방문하기 전, 그러니까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보았던,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에 붙여진 별칭인 ‘리틀 보이’과 ‘팻 맨’²⁾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했습니다. 그 폭탄들이 일본의 형제자매들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친구들과 제가 우리의 아름다운 도시 외곽으로 외출했을 때, 이 도시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신앙, 그리스도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 세상에 나가라는 영감을 준 신앙의 도시 산타페는 평화의 성모,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 파스(Nuestra Señora de la Paz)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의 역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탄을 만들어 낸 길고 어두운 유산, 그리고 그 이후 제작된 수천 개의 핵무기를 생각하니 몹시

심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핵무기를 해체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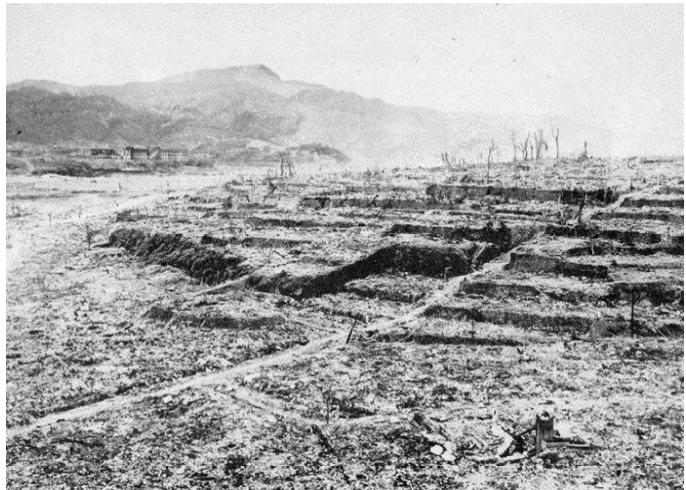


그림 2 : 원폭 투하 후의 나가사키



그림 3 : 우라카미 가톨릭 성당에서 발견된 불타버린 ‘나가사키의 마돈나’

에서 또 미국 전역에 걸쳐 핵 폐기애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날 주님의 평화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보살피고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내려주신 공동의 집인 지구를 파괴 할 잠재력을 지닌 무기를 이곳 산타페에서 만든다는 건 제게 신성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산타페 대교구는 강력 한 평화 이니셔티브의 일부여야 하고, 이 무기들이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지구나 우리 서로를 파괴하지 않아야 하며, 대신 오염된 땅을 정화하고, 대화와 협상 같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모든 국제 분쟁을 해결할 국제기구에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산타페 대교구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핵무기의 창출과 제작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평화 활동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뉴멕시코

2) 역사상 최초의 핵폭발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진행된(1945년 7월 16일) 뒤, 두 종류의 핵폭탄이 만들어졌다. 포신형 핵폭탄에는 ‘리틀 보이(Little Boy)’, 내폭형 핵폭탄에는 ‘팻 맨(Fat Man)’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미국 국방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투하를 결정했다. 1945년 8월 6일, ‘리틀 보이’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고, 8월 9일에는 ‘팻 맨’이 투하되었다.

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해 온 위험스런 곤경을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서로, 우리 모두와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하며,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우리 지구를, 평화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런 긴급한 문제에 대한 공개 대화를 시작하고 핵 폐기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글과 증언을 통해 이런 중대한 대화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바다 핵무기 실험터에서 50년 넘게 평화 철야운동을 조직하고,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에 참여하며 핵 폐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온 산타바바라 관구의 전 프란치스코회 소속 루이 비탈레 신부 (Father Louis Vitale, OFM)를 생각합니다. 비탈레 신부는 영성에 중점을 두고 비폭력적 삶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조직인 ‘파체 에 베네(Pace e Bene)’의 창립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또 테네시주 오크리지의 핵무기 시설에 들어가 핵 폐기를 요구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몇 년의 수형생활을 하고, 2021년 91세의 일기로 사망한 메건 라이스 수녀(Sister Megan Rice)를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진 수감 기간 동안, 메건 수녀는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탄 투하를 ‘역사상 가장 큰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메건 수녀는 자신의 유일한 죄라면 70세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공개적으로 핵무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밖에도 세계적으로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놀라운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서한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평화라는 대의에 새롭게 투신하기를,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핵 폐기로 이어질 활발한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 디트리히 본회퍼가 말했듯이, “악 앞에서 침묵하는 일 자체가 악이다. 하느님은 그것을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다.”¹⁾ 지속적으로 핵전쟁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뒷전에 몰려 앉아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핵무기를 폐기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게 할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서한에서 저는 뉴멕시코와 미국 전역에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런 무기를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핵 위협이라는 우려와 공포가 없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 생각과 우려를 나누기 위해, 평화의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작성한 이 성찰 서한을 내놓습니다.

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다른 교황님들, 그리고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가 내놓은 문서들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최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신 일, 그리고 교황님이 최근에 내놓은 핵 폐기 요구를 성찰할 것입니다. 저는 평화의 왕자, 우리에게 평화의 장인이 되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핵무기의 현 상황에 대해,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당장 비핵화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모두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전국적인 대화가 핵 폐기를 향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대화의 일부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평화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핵 폐기라는 선물을 간구하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평화롭게 서로를 바라보고, 여전히 개발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 또 핵전쟁 준비 작업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평화의 새로운 미래, 평화

라는 새로운 약속의 땅, 평화와 비폭력의 새로운 문화를 향해 함께 걸어가도록 초대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행성,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의 자매이자 형제로서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1부

평화의 장인이 되라는 부르심

- 교황 프란치스코, 교회, 복음의 가르침

최근 몇 년 사이, 교황 프란치스코는 가톨릭교회가 핵무기와 핵 억지력을 지지하는 태도로부터 핵무기는 비도덕적이라 비난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태도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2017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핵 억지력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핵무기 없는 세계와 통합적 군축 전망’에 관한 온전한 인간 개발을 촉진하는 국제 심포지엄 법정에서 개진된 것입니다.

2019년 11월 24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여 원자폭탄 생존자들을 만났고, 핵 폐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핵무기는 오늘날 야기할 수 있는 ‘죽음과 파괴의 블랙홀’이라고 열정적으로 설파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원자력을 전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인류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집의 미래에 대한 범죄이며...전쟁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은 핵무기의 보유와 미찬가지로 부도덕하다.”²⁾고 덧붙였습니다.

나가사키 기념관에서 모든 원폭 피해자를 위해 현화한 뒤, 교황은 핵무기 경쟁이 잘못된 안전의식을 만들어내고 국제 관계를 오염시킨다고 선언하고, 이 무기들은 자금을 낭비하는 일이며 환경적으로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점점 더 파괴적인 무기의 제조, 업그레이드, 유지, 판매를 통해 쌓은 재산과 낭비되는 돈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인 것입니다.”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가 가능하고도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런 무기가 국가 안보나 국제 안보 차원에서 당면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요청합니다. 우리는 특히 인도주의적이고 환경적인 관점에서, 핵무기의 배치가 가져올 재앙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하며, 핵 정책에 의해 조성된 공포, 불신, 적대감이라는 풍토가 고조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³⁾

두 달 뒤인 2020년 1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나라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의 호소는 핵무기 금지 조약(the Nuclear Weapons Ban Treaty)으로 알려진 조약보다 이를 앞서 나왔습니다. 이 조약은 서명국들이 핵무기를 개발, 시험, 생산, 비축, 보관, 이전, 그리고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핵무기의 무차별적인 영향을 언급하면서, “핵무기는 단기간 내에 아주 많은 사람을 공격하고 환경에는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평화와 다자간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8월 6일 일본 핵공격 75주년 기념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시 한 번 “핵무기가 전혀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도와 헌신을”⁴⁾ 촉구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여 핵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핵 폐기에 대한 세계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곳 뉴멕시코에 있는 여러분도 그 대화를 지속하기를,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멈추고, 무기고를 해체하고, 세상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는 핵무기와 핵전쟁의 위협을 비난해 왔습니다. 핵 폐기와 비확산 지지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가톨릭 사회교리에 확고히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교황 요한 23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 교황 바오로 6세, 교황 요한바오로 2세,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가장 최근에는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꾸준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핵무기는 금지되어야 한다… 국가 사이의 진실하고 지속적인 평화는 동등한 무기 공급의 소유가 아니라 상호 신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지상의 평화』, 112항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불과 1년 만에, 1963년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나라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시대의 징표(Signs of the Times)’를 읽어야 한다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에도 지속해온 군비 경쟁을 성찰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군비 경쟁의 파괴적인 결과에 주목하고, 핵무기 금지와 더불어 상호 신뢰에 기초한 항구적인 평화가 있어야 군비 경쟁이 종식될 것이라 촉구했습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한 국가들이 고도의 정신적 능력과 경제적 자원들을 모아 거대한 규모의 전쟁 무기들을 만들고 계속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고통스런 일이다. 그런 국가들의 국민들은 큰 부담으로 희생당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 발전에 의한 도움을 불가피하게 줄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정의, 지성, 인간성은 무기 경쟁을 중단하고… 핵무기는 금지되어야 한다… 전쟁 목적을 위한 무기 생산의 중지와 그 실제적 축소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 해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인간들의 마음으로부터 무기를 제거하고, 전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무장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⁵⁾

1년 뒤인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인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은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군비 경쟁처럼 우리 세계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에 교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성찰했습니다. 국가 사이의 평화, 엄청난 전쟁 무기에 소모되는 비용, 그리고 전쟁이 우리 중 가장 가난한 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면서, 『사목현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보호책으로 삼는 군비 경쟁은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안전한 길이 아니며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균형도 확실하고 진실한 평화가 아니라 는 확신을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한다. 군비 경쟁으로 전쟁의 원인들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차 증대될 수밖에 없다. 언제나 신무기의 군비에 엄청난 재화를 소모하고 있는 동안에는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불행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

다....군비 경쟁은 인류의 극심한 역병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⁶⁾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 2월 히로시마에 있는 유엔대학 과학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가해진 상처가 어떻게 인류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교황은 “핵으로 인한 절멸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지구의 미래는 유일한 한 가지 요소, 즉 인류가 어떻게 도덕적 전환을 할 것인가 달려 있다.”⁷⁾고 말했습니다.

1982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군비 경쟁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일관되고 명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원자 시대’가 시작된 뒤, 교황청과 가톨릭교회의 태도는 분명해졌다. 교회는 끊임없이 평화에 기여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에 의지하지 않는 세상을 건설하려고 노력해 왔다. 국제적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이라는 풍토를 유지할 것을 장려해 왔다. 평화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를 지지했다. 전쟁의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새롭고 더 치명적인 파괴 수단이 발달하면서, 전쟁은 그것에 연루된 위험을 드러냈고, 즉각적인 위험을 넘어서서, 협력, 상호 신뢰, 형제애와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가치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지적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과 그 이후의 모든 교황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념을 표명해 왔는데, 각자의 신념을 군비와 무기 통제 상황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입했다. [가톨릭교회는] 군비경쟁에 대해 개탄해 왔고, 있을 수 있는 무기 오용에 대한 더 큰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상호 진보적이고 검증 가능한 군축을 요구했다. 모든 나라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합법적인 안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해 왔다....가톨릭 교회의 끊임없는 우려와 지속적인 노력은 전반적이고 검증 가능한 무장 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윤리적 선택으로 이끌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⁸⁾

1983년,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된 핵무기 경쟁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주교들은 『평화의 도전(The Challenge of Peace)』이라는 사목 서한을 내놓았습니다. 이 서한은 당시 미국의 핵 정책에 가톨릭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하나의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주교들은 “미국의 억지력 정책을 재고하고 핵전쟁 발생 가능성 줄이기 위해, 더 안정적인 국내, 국제 안보체제로 이행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적, 정치적, 윤리적 노력이 필요하다.”⁹⁾고 표명했습니다.

미국 주교들은 1993년, 냉전 이후 세상에서의 평화 구축에 관해 내놓은 성명 “정의의 열매는 평화에 뿐만 씨앗(The Harvest of Justice is Sown in Peace)”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찰을 계속했습니다. 주교들은 “...미국의 주교로서 우리는 전에도 비슷한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리적 임무는 이런 무기들의 대폭적인 삭감을 진행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일’”¹⁰⁾이라고 진술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6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 “진리 안의 평화(In Truth,

“...가톨릭교회의 끊임없는 우려와 지속적인 노력은 전반적이고 검증 가능한 무장 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윤리적 선택으로 이끌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2년

Peace)”라는 제목을 붙이고, 핵무기와 그것이 제공하는 잘못된 안보 의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베네딕토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 생산과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에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의 미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 사회가 지혜롭고 용기 있게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합심하여 군비 축소의 과정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¹¹⁾

무기 생산과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에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의 미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 교황 베네딕토 16세

베네딕토 교황은 계속 말합니다.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개념은 “해로울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핵전쟁에서는 승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평화의 진리는 공개적으로든 비밀리에든 핵무기를 보유한 정부들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려고 계획한 정부들을 포함한 모든

든 사람이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으로 진로를 선회하여, 합의를 통한 점진적인 핵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여 절약된 자원은 모든 국민,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전 계획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¹²⁾

2010년 5월 5일 일반 대중을 위한 연설에서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협력적이고 안전한 핵 폐기를 향한 진전은 관련 국제 서약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실 평화는 힘의 균형뿐만 아니라 신뢰와 의무에 대한 존중에 달려 있다.”¹³⁾고 말했습니다.

2020년 2월 14일에,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의 국제 정의와 평화 위원회가 내놓은 핵 폐기에 관한 성명은 핵 위협에 대해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노력을 확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은 상호 파괴의 위협에 안주하는 국제 관계의 현상유지 태도(the status quo)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일깨워주는 명쾌한 요구이다. 미국의 주교로서, 우리는 전에도 비슷한 호소를 한 적이 있다. ‘윤리적 임무는 이런 무기들의 대폭적인 삭감을 진행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다.’”¹⁴⁾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 평화와 안정은 안보, 상호 파괴나 전멸의 위협, 단순한 권력 균형 유지에 관한 그릇된 의미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의 전면 폐기라는 궁극 목표는 하나의 도전 과제이자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 명령이 됩니다... 무기와 기타 군비 지출 비용으로, 결정적인 기아 퇴치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을 위한 세계 기금을 조성합시다.¹⁵⁾

바로 몇 달 전인 2021년 11월 17일에 열린 군축회의에서, 바티칸 국무장관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Cardinal Pietro Parolin)은 안보는 “상호 파괴와 공포의 위협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되며, 정의와 온전한 인간 발전, 인권 존중, 창조에 대한 관심, 교육과 보건 시설의 증진, 대화와 연대에서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이어 “핵무기의 전면 폐기라는 궁극 목표는 하나의 도전 과제이자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명령”이며... “실천적인 접근을 하려면 현재 많은 논쟁에 스며들어 있는 공포와 고립주의를 뛰어넘어 평화와 안보에 대한 다자간의 협력 윤리에 대한 성찰을 촉진해야 한다.”¹⁶⁾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비폭력 메시지

억지력을 잠정적으로 수용하는 활동에서부터 핵 무기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활동에 이르기까지 가톨릭교회 교리의 발전을 추적할 때, 저는 핵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서, ‘비폭력’에 비추어 예수와 복음을 이해하도록 초청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2017년 1월 1일 50주년을 맞은 세계 평화의 날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폭력 -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정치 방식(Nonviolence - A Style of Politics for Peace)”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담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상의 폭력과 예수님의 비폭력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적극적인 비폭력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자고 촉구했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기껏해야 강제 이주와 엄청난 고통만 야기될 뿐”이며 “엄청난 자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어 젊은이, 궁핍한 가족, 노인, 아픈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폭력은 모두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¹⁷⁾

예수께서는 비폭력의 삶을 보여 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근본적으로 다른 적극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환영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어김없이 설파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마태 5,44) 다른 뺨을 돌려 대라고(마태 5,39)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 와 비난하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막으셨고(요한 8,1-11), 돌아가시기 전날 밤 베드로에게 칼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을 때(마태 26,52), 예수님은 비폭력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이르기 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평화가 되셨고 적대감을 없애셨습니다(에페 2,14-16).”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비폭력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교 비폭력의 마그나 카르타다. 그것은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선으로 악에 대응하여 불의의 사슬을 끊는 것이다.”라고 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인들 사이의, 민족들 사이의 형제애와 평화로운 공존의 윤리는



<오토 펀콕(Otto Pankok)의 작품

: 총을 부수는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비폭력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을 포함한다.”

- 교황 프란치스코

두려움, 폭력, 폐쇄적인 사고의 논리가 아니라 책임과 존중, 진지한 대화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나는 군축, 그리고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를 호소합니다. 핵 억지력과 서로에 대한 확실한 파괴 위협은 그런 윤리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의 적극적인 비폭력을 실천하자는 엄숙한 요청으로 글을 맺습니다.

자선과 비폭력이 개인, 사회,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서로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널리 통용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지역적이고 일상적인 상황과 국제 질서에서 비폭력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행동, 그리고 실제로 모든 형태의 정치 생활을 나타내는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적극적인 비폭력은 일치가 갈등보다 진정으로 강력하고 더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비폭력을 통해 평화를 건설하려는 교회의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그런 모든 응답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폭력을 제거하고, 비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비폭력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길 기대합니다.

예수의 비폭력을 살아내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에 비추어, 저는 예수께서 어떻게 비폭력을 실천했으며, 여기 뉴멕시코와 미국 전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폭력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폭력과 불의, 전쟁과 제국의 시대가 종말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평화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비폭력 안에서 생활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진복팔단과 산상수훈(마태복음 5-7장)에서,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5,9)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5,38-39).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5,43-45)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은 평화를 이루는 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 딸인 우리 역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보편적이며 비폭력적인 사랑을 행하시며, 보편적인 비폭력 사랑을 행하시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기에 우리 역시 보편적이며 비폭력적인 사랑을 실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용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고, 전쟁이나 ‘정당한 전쟁론 (just war theory)’에 대한 어떤 정당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너무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며 이상적인 거 아니냐는 의문을 품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마르틴 루터 킹 목사(Dr. Martin Luther King, Jr.)는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실용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¹⁸⁾라고 말했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킹 목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훈계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보다 따르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훈계를 실제로 실천하기는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권고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강하고 용감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비겁한 사람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질문과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전에 없던 긴급성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어진 갖가지 격변은 우리에게 현대 인류가 증오라는 길, 다시 말해 멸망과 파멸로 몰아가는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상주의적인 몽상가의 경건한 명령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심지어 원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이 명령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명령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열정적으로 살아내려 힘쓰는 일입니다.¹⁹⁾

킹 목사는 원수에 대한 비폭력적인 사랑이 오늘날 남아 있는 유일하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정치적인 해결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여기 뉴멕시코와 미국 전역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적에게 핵무기를 투하할 준비를 포함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한 준비를 중단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형제자매로 여기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카의 기록(9,54-55)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직후, 제자들이 원수를 죽여도 되는지 물은 장면을 언급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제자들은 원수들에게 하늘에서 지옥불이 내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뉴멕시코에 있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조직적인 불의에 맞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의 국경을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미워하며 서로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고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고 싶으셨기에 일부러 그들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도중에 어떤 사마리아 마을은 그들의 원수인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루카 9,54)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편적인 사랑과 창조적인 비폭력을 실천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명

했지만, 제자들은 원수를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낸 선지자 엘리야의 가르침을 더 좋아했습니다.

루카는 그저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9,55)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옥불이 내려오길 바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복과 전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의 폭력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당신처럼 비폭력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뒤 여기 뉴멕시코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지옥불을 내리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옥불을 쏟아 놓기 위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어 왔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는 수만 명의 형제, 자매를 죽이는데 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뒤에도 우리는 인류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수만 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지옥불을 불러 내리고 싶어 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능가했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을 불러 내리는 행위를 해왔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지옥불이 내려지기를 바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면, 예수님은 지옥불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계속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도 틀림없이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옥불이 내려지기를 바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면, 예수님은 지옥불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계속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도 틀림없이 꾸짖으실 것입니다.”

- 존 웨스터 대주교

예수님의 후된 책망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핵무기는 비폭력적인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핵무기 만드는 일을 멈추십시오. 핵전쟁을 준비하지 말고, 핵무기를 해체하고, 보편적인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 나라를 받아 들어야 합니다.

루카복음서 다음 장에서 예수님은 평화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당신보다 앞서 72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루카 10,1-12).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각 가정에 평화의 말로 문안하고 평화의 축복을 베풀어 하느님의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돌아온 제자들은 그 일이 이루어졌기에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평화의 사명을 완수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 역시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울음을 터뜨리시며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이라 말씀하십니다(루카 19,41-42). 예수님은 폭력과 불의의 문화가 더 큰 폭력을 낳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인들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에 진군하여 그 도성을 파괴했을 때 그 일이 실현되었으니까요. 오늘날,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세상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파괴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조직적인 불의에 맞서기 위해 성전에서 비폭력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비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체포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자리 잡은 폭력에도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산하는 핵무기를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을 들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또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서 나를 위해 그들의 몸을 부수고, 나를 위해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 내 몸을 바치고 내 피를 흘렸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비폭력이라는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십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비폭력적인 예수님의 길을 취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고통당하고 죽기를 더 우선시 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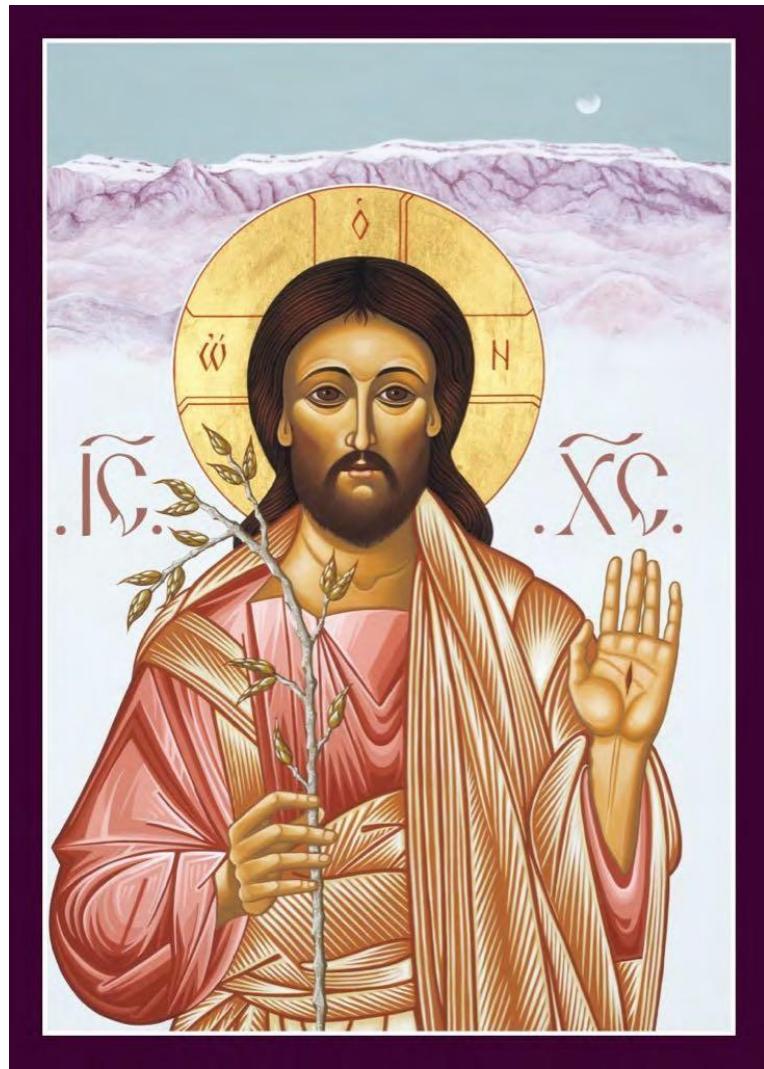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폭력적으로 칼을 들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병사를 치자, 예수님은 마지막 계명을 내리십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공동체와 교회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폭력에 관해 얼마나 진지하신지를 깨닫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져버립니다.

체포, 재판, 고문, 처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비폭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인 사람들까지 용서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비폭력적입니다. 예수님은 복수나 앙갚음을 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의 말로 친구들을 맞이하고, 평화와 비폭력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다시 파견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칼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 민족의 적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요청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비폭력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대화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확실히, 이 명령은 여기 뉴멕시코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준비되고 있는 폭력에 맞서, 핵 폐기를 시작하여 어느 누구도 다시는 하늘에서 지옥불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도전 과제입니다. 킹 박사는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길 바란다.”²⁰⁾고 결론 지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파괴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 존 웨스터 대주교



우리 샌디아의 살바도르(*Nuestro Salvador de las Sandias*), ©,

윌리엄 하트 맥니콜스 신부(Fr. William Hart McNichols),

<http://frbillmcnichols-sacredimages.com>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칼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 민족의 적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요청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비폭력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대화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존 웨스터 대주교

2부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핵 위협

- 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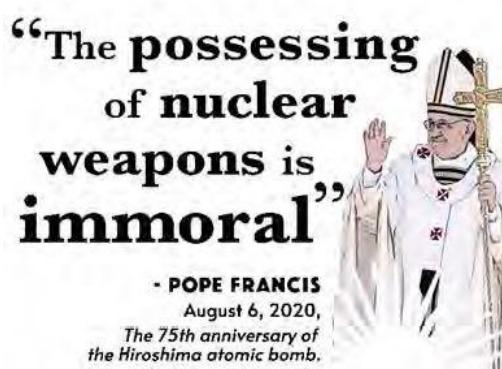
로마 가톨릭 산타페 대교구에는 환경의 수호성인이라 평화와 가난한 이들의 지침 줄 모르는 용호자인 프란치스코 성인의 ‘성스러운 신앙’이라 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ッシ시의 성 프란치스 코로부터 당신의 교황명을 따 온 교황 프란치스코는 핵무기 폐기를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는 미국 어느 교구, 어쩌면 세계 어느 곳보다도 산타페 대교구 경계 내에서 더 많은 핵무기를 설치하는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²¹⁾

교황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부도덕하다”²²⁾고 분명하게 표명해 왔습니다. 예전에 교황청은 핵 보유는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억지력’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교황청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핵무기 보유는 설령 그것이 억지력을 위한 것이라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무기의 어떤 사용 가능성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요구와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에 교회는 이것에 ‘점진적인 폐기를 향한 단계’라는 조건을 붙이고 억지력이라는 명분으로 핵무기 보유를 잠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은 실현되기는커녕 폐기와는 멀어졌습니다. 완전한 폐기를 향한 더 이상의 진척도 없고, 보다 안전하고 훨씬 진정성 있는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핵무기 설치는 그 정당성을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핵무기 사용의 부도덕성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도 부도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핵 폐기로 가는 길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²³⁾

사실 미국과 소련(현재의 러시아)이 억지력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만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핵무기 정책은 항상 억지력과 핵전쟁 전투력의 혼합체였고, 이 두 가지 모두 오늘날 전 지구의 절멸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높은 수준의 핵 태세 검토(Nuclear Posture Review)를 마친 뒤, 국방부는 “미국이 잠재적인 적에 대항할 수 있는 상당한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요구한다. 새로운 지침은 ‘카운터 밸류(counter-value)’³⁾나 ‘최소한의 억지 전략’에 의존하지 않는다.”²⁴⁾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핵전쟁 능력의 실행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에 의해 증강되



3) 군사 교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도시나 민간인처럼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 상대의 자산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Counter-force는 상대의 군대와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저위력 잠수함 핵탄두, 1990년대 초에 철수했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해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이전에 폐기하기로 계획되었던 미국 최대 규모인 1.2 메가 톤²⁵⁾ 핵폭탄의 지속적인 보유 등이 추가된 것입니다.²⁶⁾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2022년 초 발표 예정인 새로운 핵 태세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의 새로운 핵전쟁 능력 추구를 역행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는 억지력을 위해서라면 몇 백 개 정도면 될텐데,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쟁 능력을 갖추려는 이 끝없는 추구는 핵 보유국들의 거대한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동하는데, 미국은 향후 30년에 걸쳐 최소한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²⁷⁾

이 모든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요청하신 핵무기 폐기에 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땅에서 핵무기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것을 고려할 때,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프란치스코 성인의 성스러운 신앙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처럼, 산타페 대교구는 핵무기 없는 미래 세계를 응호하고 지도할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프란치스코 성인께 핵무기 없는 미래 세계를 향한 긴 여정에 나선 우리를 축복해주시길 청합니다.

새로운 핵무기 경쟁

미국이 왜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는지에 대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르 알페로비츠 같은 많은 학자들은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하려고 했고, 미국 정부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트루먼 행정부의 많은 핵심 인사들은 원폭 투하를 반대했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 끔찍한 폭탄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련에게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량살상무기를 투하했으며, 그렇게 핵무기 경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부 역사가들은 1950년대 초에 전쟁을 담당했던 부서가 “원자폭탄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원자폭탄이 그 해 11월 침공으로 사망했을지도 모를 미국인 백만 명의 죽음을 막았다는 신화를 창안해 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 신화는 오늘날에도 널리 퍼져 있으니, 더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²⁸⁾

오늘날 인간 가족 전체, 실제로 지구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핵무기 경쟁으로부터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번째 핵무기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 중거리 핵 군사력 종료와 미국-러시아 사이의 개방된 하늘 조약
- 미국은 여전히 3,7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 수치는 지구를 몇 번이라도 파괴하기에 충분한데, 핵무기 폐기는 1년에 약 75개의 탄두 정도로 둔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기존의 핵무기를 재구축하여 새로운 군사력을 갖추려 하고, 새롭게 설계된 탄두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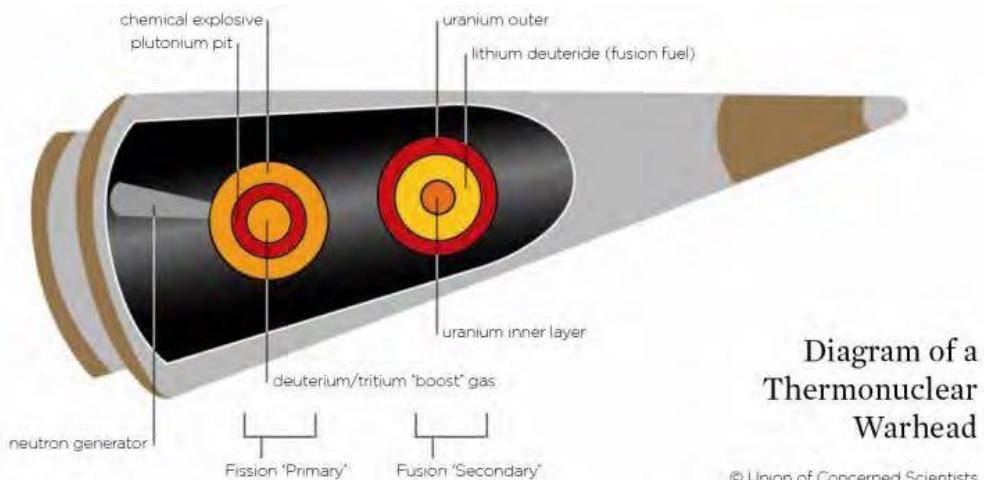


Diagram of a
Thermonuclear
Warhead

©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미사일 원자핵 탄두 모형]

새로운 핵무기 생산 공장들이 적어도 2075년까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해 신형 중폭격기, 잠수함,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매년 80개까지의 플루토늄 '피트(pit)' 폭탄 코어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연구실 예산인 40억 달러의 72%가 핵심 핵무기 연구와 생산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²⁹⁾

Central Mission of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핵심 사명]

- 러시아 역시 주요 '현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새로 진화된 핵무기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신형 핵무기를 결코 방어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 미국 상원의원은 핵전쟁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 중국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위한 수백 개의 새로운 경화 사일로⁴⁰⁾를 건설하고 있으며,

새로운 극초음속 운송 차량으로 보이는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핵전쟁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대만에 대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 능력 증대는 새로운 핵 태세 검토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게 더 강경한 입장을 채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리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는 또 인도, 중국, 파키스탄 사이의 3자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영국과 파키스탄은 자신들의 무기를 수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미국이 이란과의 핵 거래를 종료한 뒤, 이란은 폭탄 제조 능력에 가까운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핵무기 비축량을 인정한 적이 없지만,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선제적 군사 행동을 위협해 왔습니다.
- 북한은 약 4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격적인 미사일 시험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북한과 남한 사이에 재래식 무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경쟁은 본질적으로 자기-영속화 경향, 즉 끊임없이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반작용을 불안정하게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드러냅니다. 그 예로, 러시아와 중국의 신형 핵무기는 어떤 면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2001년 탄도 미사일 방어 조약(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일방적으로 종결지은 것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반응입니다. 재임 기간에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 국민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 문명을 보존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핵전쟁에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두 나라의 유일한 가치는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³⁰⁾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전 지구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레이건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요청해 온 대로 다자간, 겸증 가능한 핵무기 제거입니다.

핵전쟁에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연두교서.

핵무기의 위험

핵전쟁의 명백한 위험은 거의 대부분 비전투원이었던 약 20만 명의 사망자를 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투하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잠재적인 핵 위험을 추산할 때, 핵무기가 초래할 끔찍한 피해는 현재 전 세계에는 13,000개 이상의 핵무기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폭탄보다 100배나 더 강력하다는 사실로 가중됩니다. 약 2,000개에 이르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핵탄두는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언제라도 사용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³¹⁾

4) 사일로(silo)는 미사일의 지하 격납고 겸 발사대를 말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핵무기 보유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무기에 사용되는 우라늄 채굴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1,000여 명의 폐암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들(뉴멕시코의 디네Diné와 라구나 푸에블로Laguna Pueblo를 포함하여)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³²⁾
- 핵무기와 연관된 일을 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방사능과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거나 사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3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타페 대교구 내에서는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를 대상으로 17,595건, 샌디아 국립연구소를 대상으로 6,239건의 소송이 청구되었습니다.³³⁾
-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핵무기 연구와 생산이 이루어진 75년 동안, 약 90만 제곱 야드의 방사성 유해 폐기물이 내부 처리가 되지 않은 구덩이와 참호에 매장되었습니다.³⁴⁾ 종합적인 정화 계획도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하수는 엄청난 오염 물질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³⁵⁾
- 핵무기 실험에서 발생하는 낙진은 194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43만 명에 이르는 암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명이 긴 탄소-14 낙진(carbon-14 fallout)으로 결국 120만에서 24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³⁶⁾ 뉴멕시코의 트리니티 실험 낙진 피해자(Trinity⁵) Test downwinders)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 미국은 핵무기에 10조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으며,³⁷⁾ 향후 30년에 걸쳐 핵무기 비축과 수송체계를 현대화하는데 약 1조 7000억 달러를 재투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병들고,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비용입니다. 핵전쟁에 얼마나 엄청난 비용이 드는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겪어온 주제인, 핵전쟁 이후의 긴 ‘핵 겨울’⁶⁾의 파국적인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98년 5월 유엔 보고서는 “주요 핵 치환은 직접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수십억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³⁸⁾



그림 4 : 내부 처리 되지 않은 구덩이에 매장하기 위해 방치된 방사성 유독 폐기물 -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핵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고와 잘못된 계산

5) 트리니티(Trinity)는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사용된 핵무기에 붙여진 코드네임이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르도 포격장(Alamogordo Bombing and Gunnery Range)에서 실험이 실시되었다. 사용된 폭탄은 플루토늄 폭탄으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эт 맨(Fat Man)과 같은 종류이다. 트리니티 실험의 크기는 TNT 22 킬로톤 이상의 규모였다고 밝혀졌다.

6) 핵 겨울(Nuclear winter)은 핵전쟁으로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인위적으로 빙하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핵무기 사용에 의한 폭발과 그에 동반되는 광범위한 화재로 공중에 발생한 재와 연기에 의해 태양광이 가려진 결과다. 칼 세이건 등의 학자들이 제창했다.

1957년,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강력한 폭탄 가운데 하나인 42,000 파운드의 수소폭탄이 산타페 대교구 내 앤더슨 커틀랜드 공군기지 남쪽 4.5 마일 지점에 우연히 떨어졌습니다.³⁹⁾ 폭발물이 완전히 내장되어 있었다면 이 폭탄은 어쩌면 뉴멕시코 중심부를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고는 1961년 1월 23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골드스보로 상공에서 발생했는데, 분해되던 B-52 폭격기에서 4 메가톤 규모의 폭탄 두 개가 떨어진 것입니다. 샌디아 연구소의 한 핵무기 전문가가 “두 번째 폭탄에서 우발적인 폭발을 막기 위해 설계된 4개의 안전 시스템 가운데 3 개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네 번째 안전장치인 간단한 저전압 스위치가 그날 노스 캐롤라이

나에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⁴⁰⁾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구축함의 공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 잠수함에 탄 장교 3명 가운데 한 사람은 핵 어뢰의 발사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행위로 거의 확실시되던 전면적인 핵전쟁의 개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⁴¹⁾

1979년, 소련의 전면 핵 공격에 대비하여 모의실험을 하던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의 훈련 테이프가 조기 경보망에 실수로 삽입되었습니다. 그 후 2년 사이 미국의 경보 시스템은 3 차례나 더 잘못된 경보를 발생시켰습니다.⁴²⁾

1983년 9월 26일, 소련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관할하던 대령은 미국의 탄도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두 건의 보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위 당국에 대응 공격을 개시하라고 통보하기 전에, 그는 지상 레이더 상에서의 확인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하며 정해진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복종이 세상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⁴³⁾

1995년에 러시아 전략군은 과학 장비를 실은 미-노르웨이 로켓을 핵무기로 무장한 미사일로 오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미사일의 궤도가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기 전에 처음으로 ‘핵 축구(nuclear football)’⁷⁾를 작동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에서 핵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건 이후, 핵무기에 대한 명령과 통제, 안전 메커니즘은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핵무기를 없애지 않고서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위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핵전쟁의 현실적인 위협은 남아 있으며,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무기 경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 1945년 7월 16일 트리니티 핵 실험,
원자 시대의 여명

7) 대통령 비상 가방(the president's emergency satchel)이라 불리는 서류 가방으로, 대통령이 비상작전센터 같은 고정 지휘소를 떠나 있을 때 핵 공격을 승인하는 장비를 말한다. 전략 방어 시스템의 모바일 허브로 기능하며, 고위 보좌관이 들고 다닌다.

- 핵무기 경쟁은 이제 더 이상 러시아와 미국 양자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테러리스트나 하위 국가 행위자들에⁸⁾ 의해 국지적인 핵전쟁이 벌어지거나 핵무기를 사용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새로운 사이버 전쟁 기술은 핵 방어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핵무기의 지휘와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 극초음속 전달 플랫폼과 인공 지능의 기술적 발전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을 포함한 갈등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엄청난 혼란과 인 간의 이주를 야기할 것입니다.



8) 하위 국가 행위자(sub-state actors)에는 다국적 기업, 비정부기구, 지식 전문가 단체, 국제기구, 반란을 일으키는 집단, 테러 단체 등이 포함된다.

3부

엄청난 빛을 목격하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 유일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은 핵 폐기

핵확산금지조약 준수의 실패

흔히 세계 핵확산 금지체제의 초석이라고 불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70년에 발효되어 189개국이 서명했습니다(다른 어떤 조약보다 많은 나라가 서명). “조약에 서명한 각국은 선의를 지니고 핵무기 경쟁의 초기 중단과 핵 폐기에 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협의한다.”⁴⁴⁾는 내용을 대가로, 비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취득을 포기한다는 그랜드 바겐이었습니다.

“핵보유국들이 핵 폐기로 나아가는 한에서만 나머지 국가들도 비확산 체제를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 2014년 교황청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핵무기를 가진 어느 나라도 그 엄숙한 약속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핵무기를 무기한 보존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현대화’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점점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 교황청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핵확산금지조약과 그 밖의 국제 문서에 담겨 있는 무장 해제에 대한 약속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세부 사항 이상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도덕적 약속입니다...핵보유국들이 핵 폐기를 향해 거의 또는 전혀 나아가지 못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은 현상 유지 정책의 부당한 지속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보유국들이 핵 폐기로 나아가는 한에서만 나머지 국가들도 비확산 체제를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⁴⁵⁾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the Review Conference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는 핵 폐기에 대해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 갖가지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향후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는 핵무기 강국과 비핵 국가들 사이에 절망적인 교착상태를 드러내면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가톨릭교회는 처음부터 핵무기 금지 조약의 주도적인 지지자였습니다. 2017년 3월 금지 조약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약 체결 과정이 “핵무기가 없는 세계로 가는 길에서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일’⁴⁶⁾이 아니라는 희망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바티칸은 2017년 9월 이 조약에 서명한 첫 번째 국가였으며, 조약은 2021년 1월 22일 드디어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 핵무기를 금지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입니다. 이 금지 조약은 특히 화학

“산타페 대교구는 핵무기 금지에

관한 조약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조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장려할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 존 웨스터 대주교

및 생물학 무기 협약과 같은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금지 조약에 비해 훨씬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이 조약은 “핵무기 활동이 원주민들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각 주 당국은...

그렇게 오염된 지역의 환경 복원을 위해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⁴⁷⁾는 내용을 강조했다는 면에서 산타페 대교구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과 우리 땅에 깊이 연관된 핵무기의 역사를 감안할 때, 산타페 대교구는 핵무기 금지 조약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쳐 조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장려할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영원히 유지하는 뉴멕시코의 독특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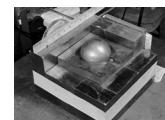
뉴멕시코에는 미국 3대 핵무기 실험실 중 두 곳인 로스 알라모스와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로스 알라모스 실험실 토지의 대부분은 아메리카 원주민 선조들과 히스패닉 정착민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압류되었는데, 이로써 식민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체계적인 폭력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파괴한 원자폭탄을 설계하고 생산한 핵무기의 발상지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원자 폭발이 이루어진 트리니티 실험은 뉴멕시코 중남부 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매혹의 땅(the Land of Enchantment)이라는 맛갓은 별칭을 지닌 뉴멕시코 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핵무기 보유 시설을 갖고 있는데, 앨버커키 국제공항 남쪽 2 마일 지점에 위치한 커틀랜드 공군 기지 지하 저장고에 약 2,500개에 이르는 핵탄두가 있다고 합니다. 독립된 나라였다면, 뉴멕시코는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일 것입니다.⁴⁸⁾

연방 예산 문서에 따르면, 뉴멕시코 주 에너지 시설 관리국은 2022 회계연도에 80억 달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주 전체 운영 예산인 73억 4천만 달러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그 예산의 75%(60억 달러)가 에너지국의 반자율적 핵무기 기관인 국가 핵 안보국(the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핵무기 연구와 생산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국가 핵 안보국이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는 핵무기 예산 155억 달러의 39%가 뉴멕시코 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뉴멕시코 주 바로 옆에 있는 주의 전체 예산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⁴⁹⁾

플루토늄 ‘피트(pit)’⁵⁰⁾ 폭탄 코어의 생산은 미국에서 산업 규모의 핵무기 생산의 초점이었는데, 1989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덴버 인근 로키 플랫 공장(Rocky Flats Plant)에서 벌어진 환경 범죄를 조사하면서 갑자기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1996년에 에너지국은 피트 생산 임무를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로 다시 이전시키고, 연간 20개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국가 핵 안보국은 로스 알라모스 실험실에서 연간 30개의 피트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에서 연간 최대 80개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2022 회계연도에 투기적인 신형 핵무기에 사용될 피트를 증산하는 데만⁵¹⁾ 10억 달러를 받게

9) 핵분열 물질과 중성자 반사체가 결합되어 있는 폭발 무기의 핵을 말한다. 1950년대에 시험된 일부 무기들은 U-235로 만든 피트를 사용하거나 플루토늄으로 합성한 피트를 사용했는데, 플루토늄 피트가 이름이 가장 작아 1960년대 초부터 표준이 되었다.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실험 유예로 이 무기들이 전면적으로 시험될 수는 없지만, 더 나쁜 것은 미국이 다시 시험을 진행하도록 자극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분명히 그 조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약 90만 평방 야드에 이르는 방사성 유해 쓰레기⁵¹⁾를 리오그란데 강¹⁰⁾에서 3마일 떨어진 내부 처리를 하지 않은 구덩이와 간도에 묻고 덮어버릴(cap and cover)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폐기물은 그 지역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하수에 흘러들어 영구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뉴멕시코 주에는 또 미국 유일의 방사성 폐기물 심층 지질 처리장인 격리 파일럿 플랜트(Waste Isolation Pilot Plant, 약칭 WIPP)가 있습니다. 국가 핵 안보국은 앞으로 WIPP의 용량의 절반은 신형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피트’ 폭탄 코어 생산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위해 남겨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⁵²⁾

뉴멕시코는 자체 원자력발전소를 가진 적이 없는데도 원자력업계는 우리 주에 이른바 ‘통합 임시 저장소(Consolidated Interim Storage)’를 설치하여 10만 톤 이상의 치명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⁵³⁾ 65년 동안 상업용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도 영구적인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저장소가 ‘임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활용할 기금을 빼앗는 핵무기

핵무기 산업이 직,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는 이유로, 뉴멕시코 의회 대표단은 핵무기 산업을 역사적으로 크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혹의 땅, 뉴멕시코는 50개 주 전체의 주요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늘 최 하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무기 산업이 일부 특권층이 아니라 전체 뉴멕시코인에게 정말로 이익이 되는 걸까요? 증거는 그 반대를 보여 줍니다. 핵무기 산업이 79년 동안 뉴멕시코에서 가동되어 왔는데, 인구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1959년 37위이던 1인당 소득이 2019년에는 49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⁵⁴⁾ 더욱이, 최근의 한 경제 연구는 연구소의 존재가 로스 알라모스 카운티 주변 7개 카운티 정부의 경제적 순 이익을 유출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⁵⁵⁾ 대조적으로,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로스 알라모스 카운티는 중위 가구 소득 면에서 미국에서 4번째로 부유한 카운티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뉴멕시코에는 48%의 히스패닉계와 12%의 아메리카 원주민이 거주합니다. 로스 알라모스 카운티에는 비히스패닉계 백인이 79% 생활하고 있으며, 미국의 다른 카운티보다 인구 비례 상 백만장자가 더 많습니다. 반면 뉴멕시코는 빈곤에 시달리는 아동과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매혹의 땅은 전반적인 아동 복지 면에서 모든 주 가운데 49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에 경제적 불평등과 제도적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2014년, 교황청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총이 제작되고, 군함이 진수되고, 로켓이 발사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먹을 음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10) 리오그란데(The Rio Grande)는 미국과 멕시코를 통과하는 3,051km 길이에 이르는 강이다. 콜로라도 주 남쪽에서 발원하여 뉴멕시코 주를 거쳐 텍사스 주로 흘러든 뒤, 멕시코 만으로 흐른다. 이 강을 경계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구분한다.

냉전이 종식되고 20여 년 전, 핵 교착상태(the nuclear stand-off)의 종식은 전 세계 빙곤층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평화 배당금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사실, 엄청난 금액의 돈이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수를 줄이고 있는 바로 그 국가들의 핵 무장 ‘현대화’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⁵⁶⁾

냉전 이후 미국에서는 핵무기 ‘현대화’ 비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비용에는 전체 비축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신형 미사일, 잠수함, 폭격기를 만드는데 드는 엄청난 액수가 포함됩니다. 더욱이, 국가 전체적으로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다음 연설은 유명합니다.

총이 제작되고, 군함이 진수되고, 로켓이 발사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먹을 음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 입을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장한 세계가 돈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땀, 과학자들의 천재성, 아이들의 희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위협적인 전쟁의 구름 아래, 인류는 철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⁵⁷⁾

2014년에 교황청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핵 강대국 중심의 정치 체제가 세계 빙곤층에 미친 영향은 명백해 졌습니다. 50년 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핵) 무기 경쟁은 인류에게 정말로 위험한 함정,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히는 함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핵무기의 생산, 유지, 배치는 빙곤을 개선하고 빙곤층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이용되었을지도 모르는 자원을 계속해서 빼앗고 있습니다. 핵시설 확장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빙곤의 패턴을 영속시키고 있습니다.⁵⁸⁾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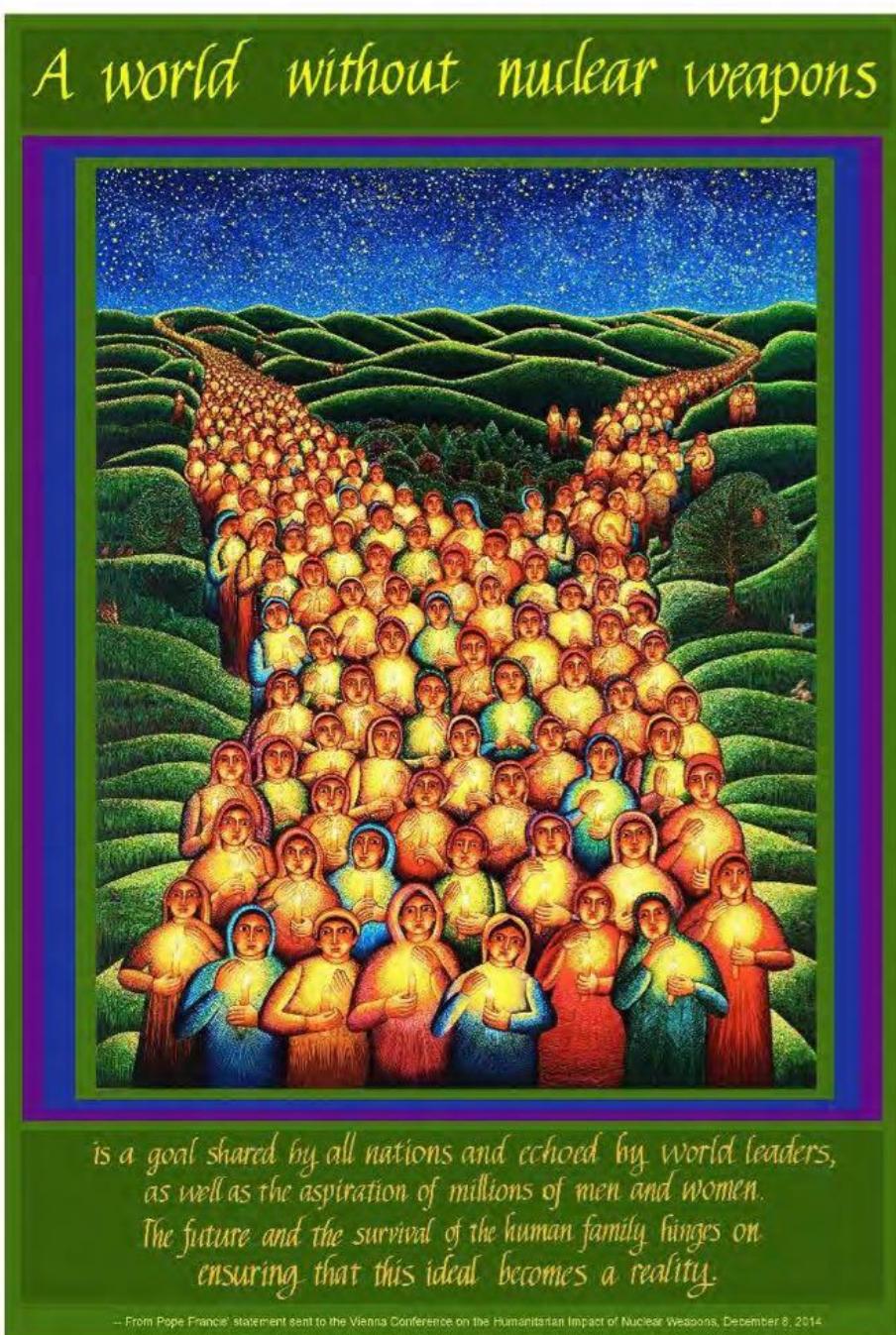
핵 공격이 인간과 환경에 초래한 끔찍한 재앙을 목격한 여기 이 도시에서, 무기 경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기 경쟁은 인간의 온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합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점점 더 파괴적인 무기의 제조, 업그레이드, 유지, 판매를 통해 쌓은 재산과 낭비되는 돈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인 것입니다.⁵⁹⁾

갖가지 통계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바로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전면 폐기에 투신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과 다른 많은 분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쓸는 막대한 재정투자를 끝내야 합니다. 그 투자는 소수의 개인과 기업만을 부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막대한 자금을 교육, 의료, 환경 정화, 기후 위협을 해결하고, 인프라를 재건하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감염병에 맞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제공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그 기금으로 우리는 빈곤과 기아, 그리고 미래의 전쟁을 막기 위한 진정한 국제 분쟁 해결 프로그램에 지원함으로써 전쟁 자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지구적인 파괴에 직면해 있는 재앙적인 기후 변화 상황에서, 핵전쟁을 준비하는데 더 이상 자원을 낭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핵 폐기라는 힘겨운 작업에 착수하고, 우리의 지구를 돌보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의 문화의 창조와 건설 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



핵무기 없는 세계는 모든 국가가 공유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주창하는 목표일뿐만 아니라, 수백만 남녀의 열망입니다.
인간 가족의 미래와 생존은 이 이상이 어떻게 현실화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2014년 핵무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엔나 컨퍼런스에서 밝힌 연설

4부

나아가야 할 길

- 성찰, 대화, 그리고 행동

저는 긴급한 핵 폐기 필요성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뉴멕시코와 미국 전역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고, 핵을 감축하고 나아가 폐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뉴멕시코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창조적인 대화를 나누며, 국립연구소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산타페 대교구는 1982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산투아리오 데 치마요(Santuario de Chimayó)에서 로스 알라모스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위한 연례 에큐메니컬 및 종교간 기도 순례(an annual ecumenical and interfaith Prayer Pilgrimage for Peace)를 후원해 왔습니다.⁶⁰⁾

1980년대에 산타페 대교구는 교구 신자들, 성직자, 로스 알라모스와 샌디아 국립연구소 직원, 군대 관계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했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는 성경, 가톨릭 사회교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매년 8월 6일 가톨릭 신자들과 뉴멕시코 주민들은 히로시마 폭탄이 세워졌던 장소인 로스 알라모스의 애슐리 폰드 공원(Ashley Pond Park)에서 철야 시위를 벌이면서 핵 폐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어떻게 니네베 사람들에게 폭력에 대해 회개하라고 요청했는지, 그려자 자루옷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 앓아 회개한 니네베 사람들에 대해 기록한 요나서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뉴멕시코 주민들은 매년 히로시마 기념일에 로스 알라모스 까지 걸어 가 니네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루옷과 재를 걸치고 인도에 앓아 30분 동안 침묵 기도를 하며, “전쟁과 핵무기가 초래한 죄를 회개하고, 평화의 하느님께 핵 폐기라는 선물을 내려주시도록 간청”합니다. 그들은 연구소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핵폐기물을 정화하고, 환경을 치유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폭력적인 일에만 종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들은 이 목표가 뉴멕시코와 세계를 폭력의 땅에서 비폭력의 새로운 땅으로 바꾸어 놓으리라고 말합니다.

핵 폐기가 모두에게 유익하고, 비폭력적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조건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뉴멕시코를 시작으로 핵 폐기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대화에 필요한 몇 가지 주제에 집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를 대대적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환경과 지하수를 영구히 보호하는 동시에 수십 년간 보수가 좋은 수백 개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뉴멕시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와 샌디아 국립연구소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핵 무기 개발 작업을 중단하고, 대신 핵무기를 해체하는 길고 기술적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 또 검증 가능한 핵 폐기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위한 계획, 그리고 전 세계의 핵무기가 사라지고 다시는 만들지 않도록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로스 알라모스와 샌디아 국립연구소의 핵 비확산 프로그램은 핵무기 없는 미래 세계를 가능하게 할 핵무기와 핵 물질의 원격 감지, 회계와 모니터링을 위한 첨단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무기 통제 조약을 지원하기 위해 향상된 검증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존 핵무기의 해체와 처리를 위해 위 두 연구소의 설계 전문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술적 수단이 핵무기가 없는 검증 가능한 미래 세계를 보증하는 동시에, 앞으로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 재앙적인 기후 변화가 이제 정말로 국가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더 가속될 환경 파괴와 인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생산과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수십억 달러를 이전시키는 일이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인 작업의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5년 회칙, 『찬미받으소서 :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기(Laudato Si' : On Care for Our Common Home)』에서, “기후 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입니다.”⁶¹⁾ 라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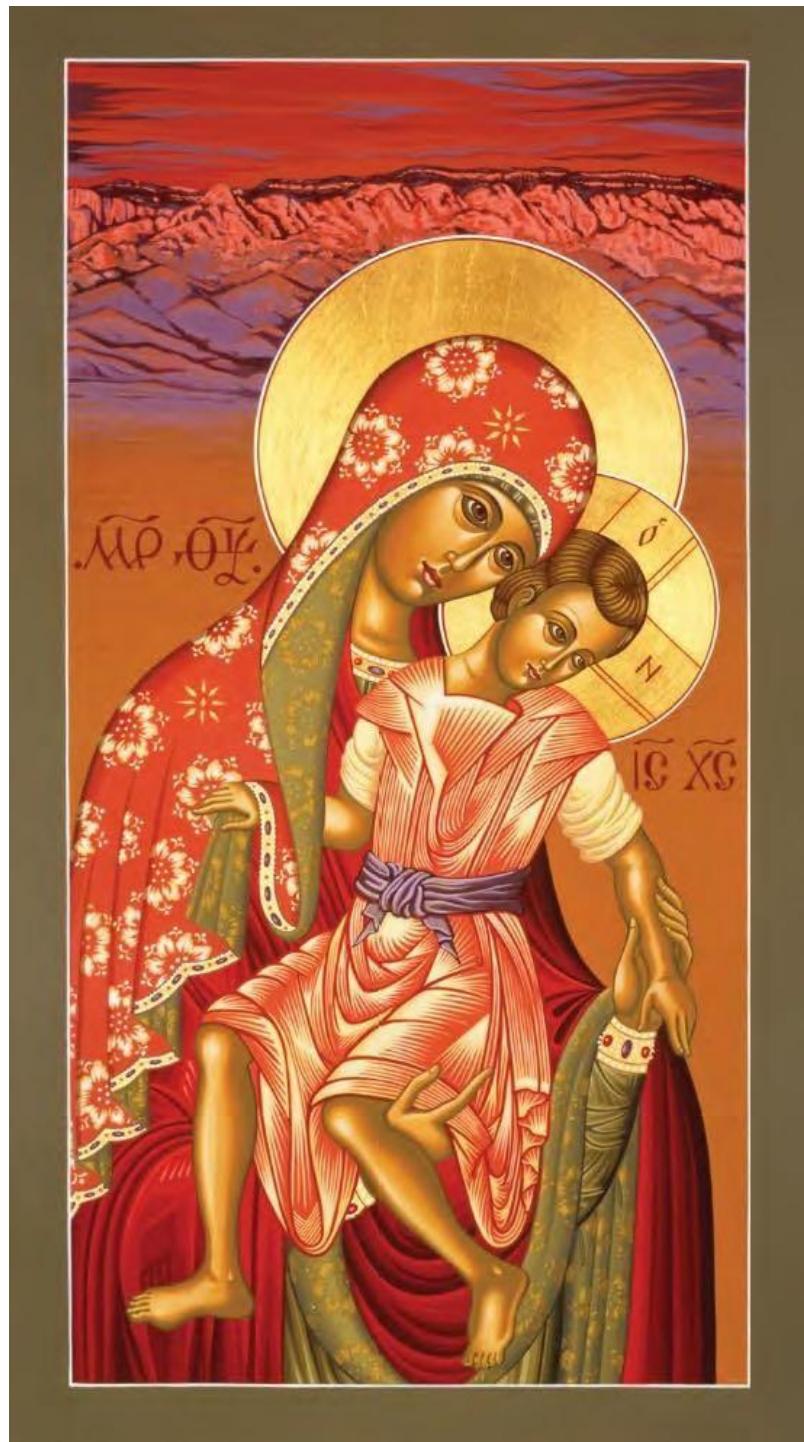
특히, 우리는 뉴멕시코에서 핵무기에 사용되는 자원을 태양열, 풍력과 지열 자원을 얻어내는 데 동원할 수 있고, 이런 자원은 화석 연료 추출을 중단함에 따라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뉴멕시코 에너지국이 재생 에너지 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자금은 우리 주 핵무기 예산의 0.4%에 불과합니다.⁶²⁾

2019년 3월, 뉴멕시코 주 의회는 2025년까지 재생 에너지 사용을 두 배로 늘리고, 2030년 경에는 재생 에너지를 50%까지 활용하고, 2045년경에는 100% 탄소 없는 전력을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에너지 전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뉴멕시코 주는 청정에너지 경제 분야에서 최대 8,83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2030년에는 46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를 자극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⁶³⁾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대대적인 정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생 에너지 사업의 확대 역시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악화되는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뉴멕시코 북부 지역의 상생(win-win) 사업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곳 뉴멕시코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 준비에 사용되는 막대한 자금을 빙곤과 기아를 종식시키는데 사용할 때가 되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국제 분쟁 해결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면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원을 세계적으로 평화를 이루고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투자한다면, 전쟁 자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미래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핵무기 금지 조약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뉴멕시코 주민들에게 도덕적인 문제를 지닌 핵무기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용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실현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는 정치적 의지뿐입니다. 산타페 대교 구는 특히 뉴멕시코 의회 대표단과 주지사에게 그런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도에 뿌리내리고, 비폭력에 기반을 두며, 핵 폐기가 성취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에 초점을 둔 우리의 모든 대화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평화의 하느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 일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낼 수 있습니다.



샌디아의 성모 마리아(*Nuestra Señora de las Sandias*), ©
윌리엄 하트 맥니콜스 신부(Fr. William Hart McNichols),

<http://frbillmcnichols-sacredimages.com>

< 맷음 말 >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서한에서 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경험이 제게 준 영향, 핵 폐기에 나서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 비폭력, 보편적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적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핵 위협의 실체, 핵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핵 폐기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해결책과 조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핵 폐기에 관한 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뉴멕시코에서 핵무기의 생산과 유지를 중단하고, 핵무기 없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요청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강복 연설(Christmas *Urbi et Orbi*¹¹⁾ address)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사적으로든(conversation)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든(dialogue)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Word)은 대화에 필요한 살(Flesh)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독백이 아니라 대화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 자신에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화는 사랑과 생명의 영원 무한한 친교입니다. 말씀이 살이 되신 위격인 예수를 세상에 오게 해 주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만남과 대화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당신 안에서 육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신뢰와 희망 속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복잡다단한 위기 앞에서 기나긴 대화의 여정에 나서기보다 대화를 회피할 위험, 지름길을 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대화에 나서는 여정 만이 갈등 해결과 모두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⁶⁴⁾

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신 이 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이의 분열과 논란을 불식시킨 해법은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이끄는 유익한 대화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솔직하고 성실한 노력입니다. 핵 폐기에 관한 대화는 이런 대화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72명의 제자를 당신 앞에 보내시며,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또 다시,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My peace is my gift to you, 요한 14,27)”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건넨 말씀은 평화의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11) 라틴어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는 ‘로마 도시와 전 세계에게’라는 뜻으로, 고대 로마에서 성명문의 서두에 썼던 문구였다. 오늘날에는 교황이 라틴어로 행하는 공식적인 축복과 강론을 말한다.

도 서로 평화의 말을 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대화를 이곳 뉴멕시코와 전 세계의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한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의 밝은 빛을 보기 위해 창문으로 달려갔던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평화의 빛이 아니라 죽음과 파멸로 이끈 거짓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폭력과 죽음, 멸망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은 핵무기의 밝은 빛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빛은 보편적인 사랑의 참된 빛, 보편적인 자비의 빛, 보편적인 평화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은 완전한 비폭력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빛은 우리에게 평화라는 새로운 미래,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the Feast of the Transfiguration)인 8월 6일에 발생했습니다. 변모 이야기에서(마태 17,1-8, 마르 9,2-8, 루카 9,28-36)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밝고 흰 빛으로 변형됩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 죽은 듯이 땅에 엎드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만지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모습, 즉 세상의 빛이요 치유하는 평화의 빛이심을 본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폭력의 어둠과 핵전쟁 위협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은 핵전쟁에 대비하여 수천 개의 핵무기를 건설하고 개발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방황하게했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사랑, 비폭력이라는 약속된 새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변모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바로 여기 뉴멕시코에서 시작하여 약속된 평화의 땅, 핵무기가 없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서로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 가족 구성원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의 집을 공유하는 하느님의 자녀로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든 어디서든 핵전쟁으로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핵 폐기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무기를 해체하고, 땅을 정화하고, 그 막대한 자원을 국제적 비폭력 분쟁 해결 구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기아, 빈곤, 인종 차별, 그리고 탐욕 같은 전쟁 자체의 원인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우리는 뉴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봅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저장하지 않는 새로운 비폭력의 뉴멕시코, 모든 사람이 핵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새로운 뉴멕시코에서 기아와 빈곤을 종식시키고, 학교와 보건 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사람의 삶을 유지하는 고용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비폭력의 삶을 가르치는 데 우리가 가진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추구하고 핵 폐기라는 임무를 떠맡는다면, 우리는 우리 땅과 세상을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온전히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라드 맨리 흉킨스(Gerard Manley Hopkins)는 “신의 위대함(God's Grandeur)”이라는 시에서, “성령께서 구부러진 세상 위에 밝은 날개를 펼치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안아 주시

니”⁶⁵⁾ 지구는 끊임없이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 밝은 날개의 빛은 지혜, 신중함, 용기로 가득 차 있어서, 평화에 관한 유익한 대화를 지속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 대화는 폭력과 핵전쟁의 위협으로 자주 굽어지는 가난한 세상을 새롭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 빛나는 날개의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요한 1,5)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아침의 별 그리스도는, “죽음의 영역으로부터 돌아와 인류에게 평화의 빛을 내려”(Easter Exsultet - 부활절 환호)⁶⁶⁾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빛,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핵 폐기에 관한 대화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평화의 도구가 됨으로써, 전쟁의 도구를 없앨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대의명분과 인류 전체와 전 지구에 드리워진 위험한 위협에 맞갖은 긴박성을 지니고, 전 세계로부터 핵 폐기가 필요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산타페 대교구 소속의 모든 신자와 뉴멕시코의 모든 주민에게 이 목표를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할 중대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핵 폐기라는 도전 과제를 떠맡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엄청난 일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임무를 위해 제자를 두 사람씩 보내신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사명과 권능을 부여받고, 그리스도에 의해 당면한 과제를 수행할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17세기 초 스페인에서 뉴멕시코로 전해진 축복받은 어머니 이미지에 부여된 첫 번째 칭호 중 하나는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 파스(Nuestra Señora de la Paz - 평화의 성모님)’ 였습니다. 평화의 성모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를 청하면서, 여러분께 핵 폐기를 향한 이 새로운 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에서 여러분의 형제,

대주교 존 C. 웨스터

산타페 대교구

2022년 1월 11일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오, 세상의 성스러운 주관자여,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your peace.
where there is hatred, let me sow love
where there is injury, pardon
where there is doubt, faith
where there is despair, hope
where there is darkness, light
where there is sadness, joy.

O divine Master, grant that I may not so much seek
to be consoled as to console,
to be understood as to understand,
to be loved as to love.
For it is in giving that we receive,
it is in pardoning that we are pardoned,
and it is in dying that we are born to eternal life. Amen.



(© “St. Francis of Assisi” by Br. Mickey McGrath, OSFS, Courtesy of Trinity Stores, www.trinitystores.com, 800.699.4482)

서한 요약

2017년 9월, 저는 일본을 여행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인류가 핵 시대의 어둠이라는 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은 암울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산타페 대교구는 이런 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평화 작업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뉴멕시코에서 또 미국 전역에 걸쳐 보편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냉전보다 틀림없이 더 위험한 새로운 핵무기 경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해 온 위험스런 곤경을 더 이상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 앞에서, 저는 핵무기 경쟁이 본질적으로 영속적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의 자기-영속화, 즉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반작용을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가속시키는 악순환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핵무기 경쟁을 중시기는 일이 아니라 핵무기를 통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 위협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인류를 생각한다면, 지구를 생각한다면, 평화와 인간 양심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긴급한 질문에 대한 공개 대화를 시작하고, 핵 폐기를 향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에 있는 커틀랜드 공군 기지에 로스 알라모스와 샌디아 핵무기 연구소 그리고 미국 최대의 핵무기 저장소가 있기에, 산타페 대교구는 핵 폐기를 옹호하는 활동에서 특별한 역할을 떠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경 정화 사업으로 뉴멕시코 주민들에게 생활을 보장하는 일자리 제공하고, 비확산 프로그램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일도 장려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가 ‘억지력’의 조건부 수용으로부터 핵 폐기가 도덕적 명령이라고 태도를 전환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핵무기 보유의 부도덕성에 대해 명확한 성명을 발표해 왔습니다. 단지 억지력을 위해서라면 몇 백 개 정도면 될텐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파괴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전쟁용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핵 무기를 ‘현대화’하고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최소 1조 7천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세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기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오래 전부터 핵무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바티칸은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언한 대로, “우리는 핵무기 금지 조약을 포함하여, 핵 폐기와 비확산이라는 주요 국제법적 기구를 지지하는 활동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향한 활동을 지속하면서 그 조약을 지지하는 일은 핵무기의 발상지인 산타페 대교구의 의무입니다.

복음서에 대한 묵상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종 비폭력적인 예수,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비폭력을 실천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평화의 새로운 미래, 약속된 평화의 땅, 평화와 비폭력의 새로운 문화를 향해 함께 걸어가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아름다운 행성, 우리 공동의 집에 사는 형제자매로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록 I

연구, 성찰, 그리고 행동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

핵 책임 동맹(Alliance for Nuclear Accountability)

<https://ananuclear.org/>

무기 통제 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

<https://www.armscontrol.org/>

핵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

<http://nuclearactive.org/>

미국 과학자 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https://fas.org/issues/national-security/>

교황청(The Holy See)

<https://www.vatican.va/content/vatican/en/search.html?query=nuclear+weapons>

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https://www.icanw.org/>

뉴멕시코 핵 감시(Nuclear Watch New Mexico)

<https://nukewatch.org>

팍스 크리스티 USA(Pax Christi USA)

<https://paxchristiusa.org/nuclear-disarmament/>

핵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https://www.ucsusa.org/nuclear-weapons>

유엔(United Nations)

<https://www.un.org/en/site-search?query=nuclear+weapons>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https://www.usccb.org/committees/international-justice-and-peace/nuclear-weapons>

● 입법 옹호 활동

미국 핵무기 복합체에서 마법의 땅 뉴멕시코가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뉴멕시코 주 의회 대표단은 특히 핵무기 문제에 관련하여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자간 그리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를 대표단에게 알릴 것을 촉구합니다. 핵무기 생산 대신 환경 정화, 비핵산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운 녹색 경제를 통해 생활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마지막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안전성, 방사성 폐기물 처리, 연소물 우려가 증가했으므로,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에 대한 새롭고 광범위한 공적 환경 영향 보고서도 요구합니다.

Senator Martin Heinrich

(202) 224-5521

<https://www.heinrich.senate.gov/contact/write-martin>

Ben Ray Lujan

(202) 224-6621

<https://www.lujan.senate.gov/contact/contact-form/Representative>

Melanie Stansbury, NM-1

(202) 225-6316

<https://stansbury.house.gov/contactRepresentative>

Yvette Herrell, NM-2

(202) 225-2365

<https://herrell.house.gov/contactRepresentative>

Teresa Leger Fernandez, NM-3

(202) 225-6190

<https://fernandez.house.gov/contact>

● 행동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 대화에 참여합시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여러분 본당의 신부, 신자들과 함께 뉴멕시코에 있는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 이 서한을 공유하고, 핵무기 폐기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대화를 시작합시다.
- 이 서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본당 신자들과 저녁 모임(온라인상으로라도)을 가집시다.
- 뉴멕시코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핵무기 폐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시다.
- 생화학 무기 금지 조약과 유사한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 지지를 표명합시다.
-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모든 형제들』을 읽고 공부합시다.
본당에서 공부 모임을 시작합시다.
- 폭력을 줄이고 평화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비폭력에 대해 날마다 공부하고 연습 합시다.
- 본당 신부님께 신자들의 기도에 핵무기 폐기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합시다.
- 핵 폐기를 위한 대중적인 평화기도 집회를 엽시다.
- 로스 알라모스와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핵전쟁을 준비하는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도록 직업을 바꿀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합시다.
- 젊은이들에게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청년들이 평화의 장인이 되도록 지원하고, 비폭력을 실천하고,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활동하도록 격려합시다.
- <https://www.icanw.org/> 에서 201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캠페인(ICAN -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조직에 대해 알아봅시다.
- 어딘가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당신의 자금을 의식적으로 사용합시다.
핵무기에 투자하지 않는 방법은 <https://www.dontbankonthebomb.com/> 을 참조합니다.
- 지역 하원의원, 상원의원, 주지사에게 연락하여 핵무기 금지 조약을 지지하고, 환경 정화, 비핵산 프로그램과 녹색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청합시다. 로스 알라모스 실험실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새롭고 광범위한 공적 환경 영향 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는 2008년에 나왔는데, 그 이후 플루토늄 피트 생산의 확대, 계속되는 핵 안전성 우려, 그리고 연소물 위험이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 공공 매체에 시민의 견해 알리기 - 뉴멕시코 일부 언론에 편지를 보냅시다.

앨버커키(Albuquerque)

Albuquerque Journal

<https://www.abqjournal.com/letters-to-the-editor>

칼스배드(Carlsbad)

Carlsbad Current Argus.

<https://static.currentargus.com/lettertoeditor/>

갤럽(Gallup)

Gallup Independent

letters@gallupindependent.com

라스 크루시스(Las Cruces)

Las Cruces Sun News.

<https://static.lcsun-news.com/lettertoeditor/>

싼타페(Santa Fe)

Santa Fe New Mexican

https://www.santafenewmexican.com/site/forms/online_services/letter/letter_editor/

Santa Fe Reporter

editor@sfreporter.com

타오스(Taos)

Taos News

https://www.taosnews.com/site/forms/online_services/letter_editor/

부록 Ⅱ

개인 성찰과 모임에서의 논의를 돋는 질문

- 1) “오늘날 전쟁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집이 맞이할 미래에 대한 범죄입니다.” “전쟁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부도덕합니다.” 라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2)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비폭력적이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오늘날 평화의 장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습니다.”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3) 루카복음서 9장 54-55절의 말씀을 성찰해 봅시다. 하늘에서 지옥불을 끌어내리려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오늘날 뉴멕시코와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오늘날의 핵전쟁 준비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4) 미국 과학자 연맹의 서한에서 인용했듯이, “현재 세계는 13,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폭탄보다 100배나 더 강력합니다. 약 2,000 개의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핵탄두는 언제라도 사용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촉구했듯이, 어떻게 하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 5) “미국 전역을 포함하여, 산타페 대교구는 핵무기 금지 조약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웨스터 대주교의 말씀을 성찰하고 토론합시다. 우리가 그 조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까요?
- 6) “각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투자를 모두를 위한 교육과 사회 기반 시설을 재구축하고, 환경과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고, 특히 세계적 유행병에 대한 백신접종에 투자한다면, 미국과 세계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웨스터 대주교의 말씀을 성찰하고 토론합시다. 정부가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는 곳에 투자하도록 어떻게 촉구할 수 있을까요?
- 7) “우리는 뉴멕시코 주민들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핵무기 일자리 이외의 고용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발휘한다면 실현 가능합니다. 산타페 대교구는 특히 뉴멕시코 의회 대표단과 주지사에게 그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는 웨스터 대주교의 말씀을 성찰하고 토론합시다. 뉴멕시코 주민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대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8) 그리스도의 평화의 빛 속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 참고 도서

- 로즈 마리 베르거(Berger, Rose Marie), et. al, editors. *Advancing Nonviolence and Just Peace in the Church and the World* (Brussels, Belgium: Pax Christi International, 2020).
- 켄 부티건과 파트리시아 브루노(Butigan, Ken with Bruno, Patricia). *From Violence to Wholeness: The Spirituality and Practice of Active Nonviolence* (Pace e Bene Press, 2002).
- 아이라 체르누수(Chernus, Ira). *American Nonviolence*. (Maryknoll: Orbis, 2004).
- 에리카 체노워스와 마리아 스텝판(Chenoweth, Erica and Stephan, Maria). *Why Civil Resistance Works: The Strategic Logic of Nonviolent Conflict*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2012).
- 매리앤 쿠지마노 러브(Cusimano Love, Maryann), “The Papal Vision: Beyond the Bomb.” Arms Control Association. May 2020.
<https://www.armscontrol.org/act/2020-05/features/papal-vision-beyond-bomb>
- 도로시 데이(Day, Dorothy). *Selected Writings* (Edited by Robert Ellsberg) (Maryknoll: Orbis, 1982).
- 존 디어(Dear, John). *Living Peace* (New York: Doubleday, 2000).
이 책의 한국어판은 『예수의 평화 영성』, (김준우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2008년)
---, *The Nonviolent Life* (Pace e Bene, 2017).
---, *The Beatitudes of Peace* (23rd Pub., 2016).
---, *The God of Peace: Toward a Theology of Nonviolence* (Wipf and Stock, 2008).
- 에크낫 이스워란(Easwaran, Eknath). *Gandhi the Man*. (Berkeley: Nilgiri Press, 1997).
이 책의 한국어판은 『인간 간디』, (박유진 옮김, 꿈꾸는 돌, 2005년)
-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 Pope). *Fratelli Tutti: Encyclical On Fraternity and Social Friendship*.
이 책의 한국어판은 『모든 형제들』, (CBCK, 2021년)
---, *Laudato Si': Encyclical On Care for Our Common Home*;
이 책의 한국어판은 『찬미받으소서』, (CBCK, 2015년).
- 알페로비츠 가르(Gar Alperovitz), *The Decision to Use the Atomic Bomb and the*

Architecture of An American Myth (Knopf, 1995)

---, *Atomic Diplomacy: Hiroshima and Potsdam* (Simon and Schuster, 1965).

---, "Did We Need to Drop It?" *New York Times*, July 30, 1995.

- 리차드 홀름스(Holmes, Richard) ed. *Nonviolence in Theory and Practice* (Calif: Wadsworth Pub., 1990).
- 마틴 루터 킹(King, Martin L. Jr). *Stride Toward Freedom* (New York: Harper & Row, 1958).
- 아서 라핀(Laffin, Arthur). *The Risk of the Cross: Living Gospel Nonviolence in the Nuclear Age* (New London, CT: Twenty Third Publications, 2020).
- 마이클 롱(Long, Michael) (ed.) *Christian Peace and Nonviolence: A Documentary History* (Maryknoll: Orbis, 2011).
- 스터튼 린드와 앤리스 린드(Lynd, Staughton, & Lynd, Alice), eds. *Nonviolence in America* (Maryknoll: Orbis, 1995).
- 로버트 맥클로이 주교(McElroy, Bishop Robert), *Colloquium on Catholic Approaches to Nuclear 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Most Reverend Robert McElroy, Bishop of the Diocese of San Diego, CA participates on a panel during a colloquium organized to explore current Catholic approaches to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in the context of the wider religious, ethical, and policy debate.
<https://www.youtube.com/watch?v=iZVj1o3xCyI>
- 토마스 머튼(Merton, Thomas), *Passion for Peace: The Social Essays*. (Edited by William Shannon) (New York: Crossroad, 1995).
- 마이클 네이글러(Nagler, Michael), *The Search for a Nonviolent Future* (San Francisco: Inner Ocean, 2004).
 이 책의 한국어판은 『폭력 없는 미래』, (이창희 옮김, 두레, 2008년)
- 헨리 나우웬(Nouwen, Henri), *Peacework* (Maryknoll: Orbis, 2005).
 이 책의 한국어판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저항하라』,
 (김정수 옮김, 성바오로, 2014년)
---, *The Road to Peace* (Ed. by John Dear) (Maryknoll: Orbis, 1997).
 이 책의 한국어판은 『평화에 이르는 길』, (조세종 옮김, 성바오로, 2004년)
- *The Power of Nonviolence: A Beacon Anthology* (Boston: Beacon Press, 2002).

- 로저 파워스와 윌리암 보겔(Powers, Roger and Vogege, William) (eds.) *Protest, Power, and Change: An Encyclopedia of Nonviolent Action* (New York: Garland Pub., 1997).
- 조나산 쉘(Schell, Jonathan). *The Gift of Time: The Case for Abolishing Nuclear Weapons Now.* (New York: Henry Holt and Co., 1998).
 - , *The Fate of the Earth* (Knopf, 1982).
- 진 샤프(Sharp, Gene). *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 (three volumes) (Boston: Porter Sargent, 1973).
 - , *Waging Nonviolent Struggle: 20th Century Practice and 21st Century Potential* (Boston: Porter Sargent, 2005).
- *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 2021*,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https://fas.org/issues/nuclear-weapons/status-world-nuclear-forces/>
-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평화의 도전 (The Challenge of Peace: God's Promise and Our Response. A Pastoral Letter on War and Peace)』, May 3, 1983.

이 책의 한국어판은 『평화의 도전 : 하느님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번역팀, 2020)

<https://www.usccb.org/upload/challenge-peace-gods-promise-our-response-1983.pdf>
-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정의의 열매는 평화에 뿌린 씨앗(The Harvest of Justice is Sown in Peace)』, 1993.
<https://www.usccb.org/resources/harvest-justice-sown-peace>
-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Nuclear Weapons and Our Catholic Response: A Catholic Study Guide for Use with Nuclear Tipping Point*, 2020.
<https://www.usccb.org/issues-and-action/human-life-and-dignity/war-and-peace/nuclear-weapons/upload/nuclear-weapons-and-our-catholic-response-study-guide.pdf>
- 제임스 워싱턴(Washington, James M). *A Testament of Hope: The Essential Writings of Martin Luther King, Jr.*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6).
- 월터 윙크(Wink, Walter). *Engaging the Power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이 책의 한국어판은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한성수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년).

미] 주

- 1) 자주 인용되는 디드리히 본호퍼(Dietrich Bonhoeffer)의 글귀.
- 2) 프란치스코 교황,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의 연설(2019년 11월 24일),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essages/pont-messages/2019/documents/papa-francesco_20191124_messaggio-incontropace-hiroshima.html
교황은 이 내용을 2020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75주년에 되풀이했다.
- 3) 위 연설.
- 4) 프란치스코 교황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권고(Pope Francis calls for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2020년 8월 6일),
<https://www.vaticannews.va/en/pope/news/2020-08/pope-francis-calls-for-world-free-of-nuclear-weapons.html>
- 5) 교황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09, 112-113항,
https://www.vatican.va/content/john-xxiii/en/encyclicals/documents/hf_j-xxiii_enc_11041963_pacem.html
- 6) 1965년 11월 7일, 교황 요한바오로 6세,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81항.
https://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vat-ii_cons_19651207_gaudium-et-spes_en.html
- 7) 『교황들과 원자력의 위협: 세계의 양심에 호소하기](The Popes and the atomic threat: Appealing to world's conscience)』에서.
<https://www.vaticannews.va/en/pope/news/2021-01/the-popes-and-the-atomic-threat-appealing-to-world-s-conscience.html>
- 8) 1982년 6월 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유엔 총회 연설(Message of His Holiness Pope John Paul II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https://w2.vatican.va/content/john-paul-ii/en/messages/pont_messages/1982/documents/hf_jp-ii_mes_19820607_disarmo-onu.html
- 9)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평화의 도전(The Challenge of Peace)』, 196항,
<https://www.usccb.org/issues-and-action/human-life-and-dignity/war-and-peace/nuclear-weapons/upload/nuclear-weapons-and-our-catholic-response-study-guide.pdf>
- 10)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정의의 열매는 평화에 뿌려진 씨앗(The Harvest of Justice is Sown in Peace)』, (1993).
<https://www.usccb.org/resources/harvest-justice-sown-peace>
- 11) 교황 베네딕토 16세, 2006년 제9차 평화의 날 담화, “진리 안의 평화(In Truth, Peace).”
https://www.vatican.va/content/benedict-xvi/en/messages/peace/documents/hf_ben-xvi_mes_20051213_xxxix-world-day-peace.html
- 12) 위 담화.
- 13) 2010년, 5월 5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베드로 광장에서의 일반 대중 연설.
https://www.vatican.va/content/benedict-xvi/en/audiences/2010/documents/hf_ben-xvi_aud_20100505.html
- 14) 2020년 2월 14일,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국제 정의와 평화 위원회가 내놓은 핵 폐기와 관한 성명.
<https://www.usccb.org/news/2020/statement-us-bishops-committee-international-justice-and-peace-committee-nuclear>

- 15)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October 2020), 262항.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encyclicals/documents/papa-francesco_20201003_encyclica-fratelli-tutti.html
- 16) 2021년 11월 17일, 바티칸 국무장관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의 연설.
<https://www.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21-11/parolin-elimination-of-nuclear-weapons-a-moral-and-humanitarian.html>
- 17) 교황 프란치스코, 2017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비폭력 -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정치 방식(Nonviolence- A Style of Politics for Peace).”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essages/peace/documents/papa-francesco_20161208_messaggio-l-giornata-mondiale-pace-2017.html
- 18) 마르틴 루터 킹, 『사랑의 힘(Strength to Love)』(Philadelphia: Fortress Press edition, 1981), p. 48.
- 19) 위 글, pp. 47-48.
- 20) 위 글, p. 55.
- 21)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와 샌디아 국립연구소, 커틀랜드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 핵무기 센터가 산타페 대교구 경내에 있기 때문이다.
- 22) 2019년 11월 24일, 교황 프란치스코,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의 연설.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essages/pont-messages/2019/documents/papa-francesco_20191124_messaggio-incontropace-hiroshima.html
- 23) 2014년 12월 8일, 『핵 군축 : 핵 폐기야 나서야 할 때(Nuclear Disarmament: Time for Abolition)』, 비엔나, 제네바에 있는 유엔과 다른 국제 조직에 대해 교황청이 밝힌 항구적인 사명.
<https://www.wagingpeace.org/nuclear-disarmament-time-for-abolition/>
- 24) 2013년 6월, 미국 국방부, 『미국 핵 도입 전략 보고서(Report on Nuclear Employment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p. 4.
<https://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us-nuclear-employment-strategy.pdf>
- 25) 1 메가톤은 TNT(폭발성 화학 물질인 트라이아이트로톨루엔[trinitrotoluene]을 말함) 100만 톤에 해당한다. 1.2 메가톤 폭탄은 15킬로톤이었던 히로시마 폭탄보다 80배나 강력하다.
- 26) 2018년, 국방부, 핵 태세 검토(Nuclear Posture Review).
<https://media.defense.gov/2018/Feb/02/2001872886/-1/-1/1/2018-NUCLEAR-POSTURE-REVIEW-FINAL-REPORT.PDF>
- 27) 2017년 미국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약칭 CBO)는 2017년부터 2046년까지 핵 무기 ‘현대화’에 1조 2천억 달러의 비용이 들 거라고 추정했다. 미국 핵 군사력 관리 비용(Approaches for Managing the Cost of US Nuclear Forces), CBO, 2017년 10월, 요약.
<https://www.cbo.gov/system/files/115th-congress-2017-2018/reports/53211-Nuclearforces.pdf>.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 핵 군사력의 예상 비용(Projected Costs of U.S. Nuclear Forces) 업데이트에서 CBO는 첫 단계인 10년 사이 추정 비용을 28% 인상했는데, 비율을 지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대화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 비용이 많이 든 연도가 포함되었고, 증가분 중 4분의 1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14% 증가를 1조 2천억 달러에 적용하면 1조 3600억 달러이다. 동시에 CBO는 실질적인 불확실성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미래 계획이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으며, 계획이 완전히 결정되고 나서도 비용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는 데 주목했다. (예를 들어, 플루토늄 피트 생산 공장의 비용 추정치는 최근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에 1조 7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거라는 사실에는 전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 28) 가르 알페로비츠(Gar Alperovitz), “The Decision to Use the Atomic Bomb and the

Architecture of An American Myth," (New York: Knopf, 1995), and "Atomic Diplomacy: Hiroshima and Potsdam,"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5). Also, "Did We Need to Drop It?" *New York Times*, July 30, 1995. 도 읽어 보길 바란다.

29) 2022 회계연도 에너지국, "연구소 표(Laboratory Tables)," pp. 44-46.

<https://www.energy.gov/sites/default/files/2021-06/doe-fy2022-budget-laboratory.pdf>

30)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1984년 연두 교서.

<https://www.youtube.com/watch?v=-gzg9TMSBBk>

31) 미국 과학자 연맹, 2021년 세계 핵전력 현황.

<https://fas.org/issues/nuclear-weapons/status-world-nuclear-forces/>

32) 노동과 인적 자원에 관한 상원 위원회 청문회, 101차 의회, 2차 세션(1990)(V.E. Archer 의 증언).

33) EEOICP(The Energy Employees Occupational Illness Compensation Program - 에너지 노동자 업무상 질병 보상 프로그램) 통계, 노동부 산재보상 프로그램 사무국.

<https://www.dol.gov/owcp/energyregs/compliance/weeklystats.htm> 과

<https://www.dol.gov/owcp/energyregs/compliance/statistics/WebPages/ALBUQUERQUEOPS.htm>

34) 『G영역 시정 조치 평가(Area G Corrective Measures Evaluation)』 Rev3(150MB), LA-UR-11-4910, p. G-9,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2011년 9월,

<http://permalink.lanl.gov/object/tr?what=info:lanl-repo/eprr/ERID-206324>

35) "앞으로 축적되어 있던 오염 물질이 식수원에 도달함에 따라,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추가적인 장소에서 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파라지토(Parajito) 고원의 수질학적 연구(1998-2004), pp. 5-15.

<http://www.worldcat.org/title/los-alamos-national-laboratorys-hydrogeologic-studies-of-the-parajito-plateau-a-synthesis-of-hydrogeologic-workplan-activities-1998-2004/oclc/316318363>

36) 『방사능으로 오염된 하늘과 땅(Radioactive Heaven and Earth)』, 핵전쟁 방지 국제 의사회와 환경에너지 연구소, 1991, p. 36, 40.

https://ieer.org/wp-content/uploads/1991/06/Radioactive_HeavenEarth_1991.pdf

37) 이 내용은 『원자력 감사, 1940년 이후 미국 핵무기 비용과 결과(Atomic Audit,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US Nuclear Weapons Since 1940)』(Edited by Steven Schwartz)에서 나온 것으로, 1998년에 1940-1996년의 비용을 9조 2천억 달러로 고정했다(3쪽,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됨). *Atomic Audit*은 또 냉전 이후 연간 비용을 500억 달러로 추산했다(1쪽, 정화 프로그램은 제외되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됨). 27년 동안 1조 3000억 달러가 추가되어, 현재까지 미국이 핵무기에 지출한 총액은 10조 달러(2021 회계연도 조정 달러 기준) 이상이다.

38) 『핵전쟁이 기후와 지구에 미치는 여러 영향 연구(Study on the Climatic and Other Global Effects of Nuclear War)』, 보고서 A/43/351, 1998, 유엔, 뉴욕, p. 16,
<http://climate.envsci.rutgers.edu/pdf/RobockAmBioNW.pdf>

39) 뉴욕타임즈 기사, "B-36이 실수로 뉴멕시코주에 거대한 수소폭탄을 투하(B-36 LOOSED HUGE H-BOMB ON NEW MEXICO IN '57 ERROR)", 1986년 8월 28일.

<https://www.nytimes.com/1986/08/28/us/b-36-loosed-huge-h-bomb-on-new-mexico-in-57-error.html>

40) "미 공군이 노스캐롤라이나에 핵무기를 투하할 뻔한 날(The Day the U.S. Air Force Almost Nuked North Carolina)".

http://www.unmuseum.org/goldsboro_bomb.htm

41) "핵전쟁을 막은 바실리 아크hipov(Vasili Arkhipov)에게 감사하라," 2012년 10월 27일.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2/oct/27/vasili-arkhipov-stopped-nuclear>

-war

42) 『1979-80년 사이 소련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잘못된 경보로 미 전략군에 내려진 경고 조치(False Warnings of Soviet Missile Attacks during 1979-80 Led to Alert Actions for U.S. Strategic Forces)』, 국가 안보 기록보관소, 2012년 3월 1일.

<https://nsarchive2.gwu.edu/nukevault/ebb3711>

43) 『세상을 구한 사나이, 스타니슬라브 페트로프(Stanislav Petrov : The Man Who May Have Saved World)』,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24280831>(스타니슬라브 페트로프의 인용문 포함) 참조. 이 이야기는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2014년 영화, '세상을 구한 사나이(The Man Who Saved the World)'로 제작되었다.

<http://themanhosavedtheworldmovie.com/>

44) 비확산 조약 보고서 VI(Non-Proliferation Treaty Article VI).

<https://www.un.org/disarmament/wmd/nuclear/>에서 각색되었다. npt/text

45) 『핵 군축 : 폐기를 위한 시간(Nuclear Disarmament: Time for Abolition)』, 교황청, 2014년 12월 8일.

<https://www.wagingpeace.org/nuclear-disarmament-time-for-abolition/>

46) 2017년 3월 23일, 교황 프란치스코, “핵무기 전면 폐기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단을 협상하기 위해 유엔 의장 일레인 화이트 고메즈(Elayne Whyte Gómez)에게 서류(To Her Excellency Elayne Whyte Gómez, 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Negotiate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Prohibit Nuclear Weapons, Leading Towards their Total Elimination).

https://reachingcriticalwill.org/images/documents/Disarmament-fora/nuclear-Weapon-ban/statements/27March_Pope_Francis.pdf

47) 핵무기 금지 조약 텍스트(Text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https://undocs.org/A/CONF.229/201718>

48) 커틀랜드 공군 기지에 활성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 수는 『미국 핵전력 2020(United States Nuclear Forces, 2020)』, 한스 크리스텐슨과 맷 코다(Hans Kristensen and Matt Korda), 미국 과학자 연맹(FAS),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https://www.tandfonline.com/doi/pdf/10.1080/00963402.2019.1701286>

국가별 핵무기 수는 2021년 세계 핵무기 현황, 미국 과학자 연맹,

<https://fas.org/issues/nuclear-weapons/status-world-nuclear-forces/>

49) 에너지국 2022 회계연도 의회 예산 요청 사유서, “주 예산 표”와 “실험실 예산 표” 참조.

<https://www.energy.gov/cfo/articles/fy-2022-budget-justification> 와

<https://www.nmdfa.state.nm.us/wp-content/uploads/2021/01/FY22-Executive-Budget-Recommendation.pdf>

50) 에너지국 2022 회계연도 의회 예산 요청 사유서, ‘실험실 비용’, “플루토늄 현대화,” p. 44,

<https://www.energy.gov/cfo/articles/fy-2022-budget-justification>

51) 『G영역 물질 처리에 대한 시정 조치 평가 보고서(Corrective Measures Evaluation Report for Material Disposal Area G, C.)』 C 기술 영역 54, 개정 3, LANL, 2011년 9월.

<http://permalink.lanl.gov/object/tr?what=info:lanl-repo/eprr/ERID-206324> warning: 13MB)

52) “복합 변환 추가 프로그램 환경 영향 설명의 최종 보충 분석(Final Supplement Analysis of the Complex Transformation Supplemental Programmat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국가 핵 안보국, 2019년 12월, p. 65.

<https://www.energy.gov/sites/prod/files/2020/01/70/final-supplement-analysis-eis-0236-54-sa-02-complex-transformation-12-2019.pdf>

53) 예컨대, 『사용된 핵연료와 고준위 폐기물의 통합 임시 저장 시설에 대한 Holtec International의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환경 영향 진술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the Holtec

International's License Application for a Consolidated Interim Storage Facility for Spent Nuclear Fuel and High Level Waste』 - 논평을 위한 보고서 초안(NUREG-2237), 미국 참조 원자력 규제 위원회,

<https://www.nrc.gov/reading-rm/doc-collects/nuregs/staff/sr2237/index.html>

54) “1958년에 뉴멕시코의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평균의 90.4%에 그쳤다. 2020년에는 약 77.9% 였다.” 뉴멕시코 대 미국 비교 동향 보고서: 1인당 개인 소득, 1958-2020,

https://united-states.reaproject.org/analysis/comparative-trends-analysis/per_capita_personal_income/reports/350000/0/#page_4

55)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경제적, 재정적 영향(The Economic and Fiscal Impact of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UNM 경영과 경제 연구국, 2020년 8월 21일,

<https://nukewatch.org/newsite/wp-content/uploads/2021/02/LANL-economy-impact-presentation-08-17-20.pdf?x68309>

56) 『핵 군축 : 폐기를 위한 시간』, 교황청, 2014년 12월 8일,

<https://www.wagingpeace.org/nuclear-disarmament-time-for-abolition/>

57) 미국 뉴스 편집자회에서 한 연설, “평화를 위한 기회(Chance for Peace),” 1953년 4월 16일.

58) 『핵 군축 : 폐기를 위한 시간』, 교황청, 2014년 12월 8일,

<https://www.wagingpeace.org/nuclear-disarmament-time-for-abolition/>

59)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원폭 평화공원(나가사키), 핵무기에 관한 교황 연설,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essages/pont-messages/2019/documents/papa-francesco_20191124_messaggio-arminucleari-nagasaki.html

60) 브렛 헨드릭슨(Hendrickson, Brett). 『산투아리오 데 치마요의 치유력 : 미국의 기적교회(The Healing Power of the Santuario de Chimayo: America's Miraculous Church)』, (NYU Press, 2017년 8월 1일), p. 159.

<https://pluralism.org/easter-pilgrimage-to-chimay%C3%B3>

61)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On Care for Our Common Home), 25항.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encyclicals/documents/papa-francesco_20150524_encyclica-laudato-si.pdf

62) 2022 회계연도, 에너지국, 주 예산 표, p. 53.

<https://www.energy.gov/sites/default/files/2021-06/doe-fy2022-budget-state.pdf>

63) 『뉴멕시코주에서 통과된 100% 청정에너지 법안(New Mexico Passes 100% Clean Energy Bill)』, 노아 롱(Noah Long), 천연자원 방위청, 2019. 3월 13일.

<https://www.nrdc.org/experts/noah-long/new-mexicos-energy-transition-heads-governor>

64) 2021, 교황 프란치스코, 크리스마스 강복 연설(urbi-et-orbi), 전문.

<https://www.thecatholictelegraph.com/full-text-pope-francis-christmas-urbi-et-orbi-blessing-2021/78876>

65) 제라드 맨리 홉킨스(Hopkins, Gerard Manley), “신의 위대함(God's Grandeur),” 『제라드 맨리 홉킨스』 (캐서린 필립스 편),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128.

66) 『로마 미사 경본(the Roman Missal)』의 영어 번역본(© 2010년)에서 발췌. 전례 법인 영어 국제 위원회 발췌. 무단 전재 금지.